

자료제공 : 2020. 8. 27.(목)

이 보도자료는 오전 11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I·SEOUL·U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

공정경제담당관	박주선	2133-5360
소비자보호팀장	문주택	2133-5370
담당자	김석용	2133-5369

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: 3매

## 서울시, 집합금지명령 위반하고 불법 영업한 29곳 특수판매업체 고발

- 집합금지명령 발령 후 市·區·경찰청 합동 2,300명이상 투입해 3,097개소 특별점검
- 집합금지 위반 22개 업체, 미신고·미등록 방문판매법 위반 6개 업체 적발
- 25명 확진자 발생 관악구 불법방문판매업체 스마일무한구름도 고발...구상권 검토
- 고위험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, 강남 테헤란로 등 일대 특별점검 지속

- 서울시는 (8.25일 기준)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했거나 관할 구청에 등록·신고 없이 영업을 한 특수판매업체 총 29곳을 고발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. 집합금지 위반(22개소)은 감염병예방법, 미신고·미등록 업체(6개소)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고발 조치했다.
- 이번 고발 대상에는 25명 확진자가 발생한 관악구 소재 스마일무한구름도 포함돼 있다. 서울시·관악구가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해 집합금지명령 및 방문판매법 위반을 확인하고 25일자로 고발 조치했다. 추가로 손해배상청구(구상권)도 검토 중이다.

- 서울시는 6. 8부로 특수판매업체(다단계·후원방문·방문판매업)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고, 2,300명 이상의 인력을 투입해 대상이 되는 3,097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특별점검을 실시해왔다고 밝혔다.
- 이번에 고발한 29개소 이외에도 ▲행정지도 1,750개소(마스크착용·소독제비치·발열체크 등) 등 총 1,779건의 조치를 취했다.
- 서울시는 특수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명령 위반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 중이다. 또, 불법영업 신고·제보센터와 민간 자율감시단 운영을 통해 접수된 미신고·미등록 업체는 특별기동단속반이 긴급 출동해 단속 중이다.
- 특히 시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고위험시설인 방문판매 등의 직접 판매 홍보관과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생지역인 강남 테헤란로, 관악서울대입구역, 금천 가산디지털단지 등 일대에 대해 특별점검과 市-區-경찰 합동 불시점검을 실시 중이다. 방역실태와 집합금지명령 준수 이행여부를 일제 조사하고 있다.
- 서울시는 앞으로도 집합금지명령위반, 미신고·미등록 불법방문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을 통해 방문판매發 코로나확산 진원지의 뿌리를 뽑겠다는 입장이다.

- 시는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특히 어르신께서는 불법운영 홍보관·체험관 등에 참석하지 말아주시고,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시가 운영하는 특수판매분야 불법영업행위신고·제보센터 또는 120다산콜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.

**[ 시민제보 창구 ]**

제보창구	연락처	운영기관
특수판매업 불법영업신고센터	02-2133-5386	서울특별시 공정경제담당관, 민생사법경찰단
다산콜센터	02-120	120다산콜재단 (서울특별시 시민봉사담당관)
안전신문고(7월 창구개설)	www.safetyreport.go.kr	행정안전부
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	044-200-4436	공정거래위원회

-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“집합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소모임 등으로 영업하는 방문판매업체 등에 대해 고발·영업정지·구상권 청구 등 모든 방안을 동원해 강력조치 하겠다”며 “집합금지명령 위반, 불법적인 방문판매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”고 말했다.

[별첨] 집합금지명령 위반 현장 사진